

농아동이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권리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right of the deaf child to grow up bilingual”
by François Grosjean
University of Neuchâtel, Switzerland
Translated by Sanghwa Kim

This translation was made possible by a collaborative project between the University of Neuchâtel, Switzerland (Language and Speech Laboratory) and Gallaudet University (Signs of Literacy Program) and was funded by The Parthenon Trust and the Elysium Foundation.

농아동이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권리*

모든 아동은 청력손실 정도에 관계없이 이중언어사용자로 성장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수화와 음성언어(서기양식, 가능하면 구어양식으로) 두 가지를 배우고 사용함으로써 아동들의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능력은 충분히 발달할 것이다.

아동들은 언어사용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가

농아동은 언어사용을 통해 아래와 같은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1. 가급적 이른 시기에 양친을 비롯한 가족과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청인아동은 언어를 접하고 들을 기회만 주어지면 보통 생후 몇년 이내에 언어를 습득하게 되며, 부모와 아동 사이의 사회적, 개인적인 유대감을 갖고 그것을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농아동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농아동에게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부모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부모와 아동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대부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유아기의 다양한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언어를 통해 아동들은 다양한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것은 아동들의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인지적 능력 중에는 유추력, 추상화, 기억력 등이 포함된다. 언어가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된 언어가 자연스럽게 않을 경우 또는 충분히 지각하기 어려운 언어를 사용할 경우, 아이들의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3. 주변세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다

아동들은 언어를 통해 주변세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다. 아동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나 다른 아동 또는 성인들과 의사소통할 때, 주변세계에 관한 정보가 상호간에 교환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은 학교에 들어가 다양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된다. 역으로 세계에 관한 지식은 언어 이해를 촉진시킨다. 즉 이러한 지식 없이,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같은 저자에 의한 문헌 이 글은 근래 수년간 이중언어 사용과 농인에 관해 숙고한 끝에 이루어진 성과물이다. 농아동을 둘러싼 사람들, 부모나 의사, 언어치료사, 교육자 중에는 농아동들이 장래에 이중언어 사용자, 이중문화 생활자가 될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다. 유익한 의견과 시사를 주신 아래 동료,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4. 주변세계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가진다

청인아동과 마찬가지로 농아동은 자신의 생활 속 일부분이 된 사람들, 즉 부모, 형제, 자매, 다른 아동들, 학교 선생님, 그밖의 여러 성인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은 최대한 정보양을 가지고 이야기 상대나 이야기하는 상황에 적합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수화로, 어떤 때는 음성언어의 여러 양식 중 하나로 행해질 것이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행해지는 수도 있다.

5. 두 가지 세계에 참여한다

농아동은 언어를 통해 점차 두 가지 세계, 즉 청인 세계와 농인 세계의 구성원이 된다. 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세계인 청인 세계(농아동 중 90%는 부모가 청인이다)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농아동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또 하나의 세계, 즉 농인 세계와도 접촉을 가져야 한다. 농아동은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두 가지 세계에 대해 가급적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중언어 사용만이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중언어 사용이란 두 가지 내지 그 이상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언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화와 음성언어의 이중사용만이 위와 같은 과제, 즉 농아동이 부모와 조기부터 의사소통을 하고 다양한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며 주변세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여, 청인과 농인 두 가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어떤 종류의 이중언어 사용인가?

농아동에게 있어서의 이중언어 사용이란 농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수화와 다수인 청인이 사용하는 음성언어가 포함된다. 음성언어는 주로 서기양식을 통해, 가능한 경우에는 구어양식을 통해 획득된다. 아동에 따라 이 두 가지 언어는 그 역할이 다르다. 어떤 아동에게는 수화가 우위를 차지하고 어떤 아동에게는 음성언어가 우위를 차지하며, 두 가지 언어가 대등한 경우도 있다. 또한 아동의 청력손실 정도가 다양하고, 언어접촉 상황도 복잡하다(네 종류의 언어양식, 두 종류의 산출양식, 두 종류의 지각양식 등). 그렇기 때문에 이중언어 사용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농아동이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중언어 사용자이며 두 가지 문화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농아동은 온 세계의 인구 중 약 50%를 차지하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사용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오늘날 세계에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과 같은 수의 이중언어 생활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른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농아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 가지 세계, 즉 청인 세계와 농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수화의 역할

수화는 무거운 청력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는 제 1 언어(제 1 언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 중 하나)로 획득되어야 한다. 수화는 자연스럽게 충분히 발달된 언어이므로 충분하고 완전한 의사소통을 보장해 준다. 수화를 조기에 획득하면, 조기에 농아동과 부모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화는 농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농아동이 주변세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농인과 만나게 되었을 때, 농아동이 속할 두 가지 세계 중 하나인 농인 세계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또한 수화는 음성언어(구어양식이든 서기양식이든) 획득을 촉진시켜 준다. 수화로든 음성언어로든 제 1 언어를 제대로 획득하면, 그것이 제 2 언어 획득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화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언어는 획득한 상태라는 증거이다. 농아동 자신과 전문가들의 막대한 노력과 다양한 기술의 구사에도 불구하고, 구어양식으로 음성언어를 산출하거나 지각하거나 하는 것은 많은 농아동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이나 노력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아동들이 가지는 과제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언어인 수화와 접촉이 부정된다는 것은 아동들의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지연시킬 위험성을 가진다.

음성언어의 역할

이중언어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알고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아동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언어란 그들이 속하는 청인 세계에서 사용되는 음성언어이다. 음성언어는 구어양식이든 서기양식이든 농아동들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이나 친척, 앞으로 만나게 될 친구, 직장의 고용주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농아동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 중 수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음성언어로라도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많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음성언어—주로 서기양식—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 많은 부분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서기양식을 통해 전해진 것들이다. 그리고 농아동이 학력을 키우거나 앞으로 취직할 때에도, 서기양식—가능하면 구어양식으로도—음성언어를 충분히 익혀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론

농아동에게 두 가지 언어, 즉 청력손실의 정도가 심할 경우 제 1 언어로서 농인사회의 언어인 수화화, 다수인 청인들의 언어로서의 음성언어를 획득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이다.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두 가지 언어사회와 접하고 배우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언어, 즉 음성언어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비록 최근의 기술적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음성언어에만 의존하다가는 아동들의 인지적, 인격적 발달이 위태로워지는 데다가, 그들이 속하는 두 가지 세계에 참여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아동이 장애에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필요한 경우에 어느 한쪽 세계만을 선택해서 생활하든지 간에, 조기부터 두 가지 언어를 접하는 것은 하나만 접하는 경우보다 더욱 많은 것을 그 아동에게 보장해 줄 수 있다.

인간은 몇 가지 언어를 아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모른다면 그때는 후회한다. 그 사람의 발달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특히 그러하다. 농아동은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중언어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이며 과제이다.

References

Grosjean, F. (1982). *Life with Two Languages: An Introduction to Bilingual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rosjean, F. (1987). Bilingualism. In *Gallaudet Encyclopedia of Deaf People and Deafness*. New York: McGraw-Hill.

Grosjean, F. (1992). The bilingual and the bicultural person in the hearing and in the deaf world. *Sign Language Studies*, 77, 307-320.

Grosjean, F. (1994). Individual bilingualism. In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Grosjean, F. (1994). Sign bilingualism: Issues. In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Grosjean, F. (1996). Living with two languages and two cultures. In I. Parasnis (Ed.), *Cultural and Language Diversity: Reflections on the Deaf Experience* (pp. 20-3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